

제주도민 건강위해 봉사해줄 것 당부

동제주 로타리클럽 주례모임, 건협 제주지부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사회봉사단체인 동제주 로타리클럽은 지난 11월 13일 12시, 클럽 주회(週會)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주회는 로타리클럽이 우수 직장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직장인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주례모임으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모임에서는 건협 제주지부 사업과 신항식씨에게 클럽회장 표창패와 부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동제주 로타리클럽은 건협 제주지부 정병교 사무국장으로부터 지부 현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제주지부에 금일 봉을 전달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검사기관으로서, 제주도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전화번호 변경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의 전화번호가 지난 해 12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 경 후	변 경 전
47-7531	57-4199
47-1121(AIDS)	57-0110(AIDS)
47-7529(FAX)	57-4687(FAX)
57-6629	57-6629
47-7532	47-7532

우리나라 성병검사 실태 등 토의

건협 서울지부, 보건소 보건관계자 초청간담회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해 12월 23일, 보건소 보건관계자 초청간담회를 지부홍보관에서 개최했다.

보건소 관내 주민 및 특수업태부의 건강관리 의식 고취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보건위생과 방역계장, 동대문구·강동구·영등포구·성북구 보건소 지도보건

과의 건강관리 및 성병 담당자, 건협 서울지부 직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92년도 특수업태부 검사실적과 '93년도 성병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성병 실태와 성병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광주시 저소득 주민에 건강진단

건협 광주·전남지부, 1만9천여명 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는 광주직할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을 지난 10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건강진단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시가 실시한 것으로, 영·유아, 초·중고생을 제외한 생활보호대상자 전원과 관할 구청장이 인정한 1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이들에 대한 1차 건강진단을 마치고 이중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한 2차 검진을 순

회 검진 차량을 이용해 실시했다.

한편 광주시 의사회는 이번 검진 대상자에게 영양제를 나누어 주었고, 시당국은 1·2차 검진을 마친 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병원에 진료를 알선해 주었다.

'92년도 종무식

지난 1년간 직원노고 치하

한국건강관리협회 崔振學 회장은 지난 해 12월 31일, 건협 본부 및 서울지부 직원이 모인 가운데 홍보관에서 '92년도 종무식을 가졌다.